

장 군 님 과 C N C (17)

닭 공장 CNC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에서 CNC와 관련한 유모아를 자주 쓰시었다.

2009년 10월 31일이였다.

이날 평안북도 닭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앞날이사를 비롯 모든 공장들을 돌아보시면서 10년세월속에서도 멈추없이 노동자들에게 닭알을 보내준 닭공장의 일군들에게 대한 뜨거운 사랑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기계관리도 잘하여 새것처럼 보이는데다 경영관리를 잘하여 수십만알의 닭알들이 일제없이 쏟아지고있었다.

이 공장이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조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이제는 10년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0년 됐다. ...》하고 되뇌이시었다.

지배인은 축산대학출신이고 당비서는 희원공업대학출신이고 기사장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졸업생인데 10년이 된 오늘날까지 하루도 기대를 고장없이 가동시키며 만부하로 돌리고있다는 도당책임일군의 보고를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오늘 <닭공장CNC>를 보았 습니다.》

유쾌한 그 말씀속에는 우리의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최첨단에 대한 감각속에 살아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오리 <한증>

장군님의 현지도의 길에서는 오리 <한증>에 대한 일화도 쏘여졌다.

CNC바람으로 하여 경영부문과 농업 부문에서도 최첨단과제의 열풍이 불었다. 그 과정에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창조성이 백배해졌고 현대화의 속도도 빨라졌다.

이제는 자그마한 식료공장에서도 편직물공장에서도 지어는 오리목장에서 남들이 생각 못하는 CNC적인 생산공정들을 착상하여 생산성을 훨씬 높여가고있었다. 어느 한 공장의 오리목장에서였다.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기업소일군들의 사업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끼오리에서 들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새끼오리들이 연방 까나오는 모양을 보고계시었다.

목장일군이 말씀드리었다.

《알에서 까나 새끼오리들입니다.》

《음, 또 까나오고있구만.》

다정한 음성으로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목장에서는 새끼오리가 까나오자마자 온열처리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있었다.

알에서 새끼가 까나올 때 노란자위를 안고나와 한주일간 보존하고있는데 그것을 온열처리해주면 인차 흡수하여 튼튼해진다는데 근거한것이였다.

어디서가 노래소리가 울리었다.

영상카메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새끼오리들이 음악감상까지 하면서 온열처리를 받고 나오면 비할바없이 튼튼해지게 되어있었다.

《이 방법이 오리기르기에 아주 좋습니다. 설비는 저희들이 만들어 도입하였 습니다.》

온열처리방법으로 허약한 새끼오리의 몸안에 있는 병균을 깨끗이 청산하고 튼튼한 새끼오리를 보내준다는 것이다.

목장지배인의 말에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오리가 다 살아나오?》

한 두마리가 죽는다는 대답에 장군님께서는 《그거야 부실한거지.》라고 하시면서 웃으시었다.

목장지배인이 장군님께 또다시 말씀드리었다.

《장군님, 저희들은 알깨우기생산공정을 CNC적으로 완비하여 온도, 습도, 알굴리기, 배분을 컴퓨터로 조종하고있습니다.》

지배인의 설명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이렇게 물으시는것이였다.

《오리 <한증>이 어디요?》

《저기 나가서 있습니다.》

공장일군의 대답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었다.

《오리가 <한증>하는것은 처음 보오. 오리가 <한증>을 다 하디나... 허허허》

장 공장 CNC

2010년 5월 17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량강도에 있는 삼지연장공장을 현지도하실 때였다.

록색의 지붕을 씌운 공장건물은 첫 보기에도 새 세기의 향취가 그대로 풍기는 듯 하였다.

앞에는 흰눈을 머리에 인 포대산이 보였고 뒤에는 배개봉이 길게 누워있었다. 백두산기슭의 성스러운 정서가 안겨와 더욱더 정다와보이는 공장건물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안내

를 받으시며 현장들을 돌아보시었다.

시름시름한 발표새가 나는 현장에도 들리시고 천정이 머리에 닿을것 같은 소박한 현장에도 둘러보시였으며 된장, 고추장이 쏟아져나오는 기대의 동작과정을 지켜보기도 하시었다.

백두산기슭 삼지연에 현대적인 장공장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는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만들 어지고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면서 질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기도 하시었다.

《풍기름, <간장>, <된장>, <고추장>이라고 쓴 상표들을 유심히 보아주시면서 장군님께서는 이 지방 사람들의 식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시기도 하시었다.

복족사람들은 고추장도 다른 지방 사람 들보다 더 맵게 만들고 술도 4%도 이상 되어야 좋아하는데 그것은 추위를 견디는 생활속에서 나온 음식문화일것이라고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듣기에도 구수하였다.

일군들은 CNC화바람속에서 공장이 현대화되는데 대하여 자랑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신선한 향취가 흘러내리는 공장구내를 따라 컴퓨터조종실에 들리시었다.

생산공정들을 하나의 화면에서 볼수 있는 현대적인 조종실이었다.

공장일군들은 화면에 나타나는 생산공정들을 설명하면서 커다란 자부름 가지고 장군님께 말씀드리었다.

장군의 호랑한 웃음

런이어나가는 보도들에서 세계는 새로 온것을 찾아보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CNC화가 실현된 공장들을 현지도하시었다는 보도들이 우주공간에 울려 퍼졌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활동보도에서도 자주 들리는 CNC라는 말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혁명활동보도만이 아니였다.

방송을 들으면 방송에서도 CNC노래, 텔레비전을 보면 텔레비전에서도 CNC노래였다.

세상사람들은 노래에 나오는 새로운 영어문자어의 효용을 가지고 제 나름의 분석들을 가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정치실력의 폭과 깊이에 대하여서는 세계가 잘 알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평양에 왔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은 자리에서 지금은 《아날로그시대》가 아니라 《디지털시대》인데 디지털시대로 대화를 하자고 하신 한마디의 말씀에 깜짝 놀랐던 일이 있다.

이 사실이 남조선 경향각지에 급속히 전파된 사실만으로도 새 세기의 높은 지향을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장군님의 정치적매력, 지성적매력에 대하여 충분히 감각할수 있는것이다.

세상사람들은 너무도 몰랐던것이다.

조선에 있어서 CNC는 단순한 영어자모 만이 아니라. 광고를 위한 문자도 아니며 그것은 지식경제시대 조선의 새 모습을 담고있었다.

그렇게 있어서 CNC는 이미 최첨단과제의 강력한 무기로 되었다.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최첨단을 향하여 나아가고있는 조선의

《경영활동의 컴퓨터화를 하니 생산성을 높이는데도 좋고 업무활동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로동규율을 세우는 데도 좋고 좋은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환하게 웃으시었다.

백두산드락의 장공장에서 《인민을 위하여 부투함!》이라는 우리 당의 구호가 빛나고있는것이 더욱 기쁘신듯 그이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꾸러진 공장구내를 다시금 둘러 보시었다.

그러시고 수행한 일군들에게 큰소리로 말씀하시었다.

《괜찮아. 이제는 장공장까지 CNC라는 말을 하니 얼마나 좋소.》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고생도 락으로 여기며 걸어오신 강행군의 보람을 한껏 느끼시는 무한한 희열의 순간이었다.

목표는 무엇인가. 조선의 미래를 틀어쥐고 계시는 김정일장군의 정치방향, 정치측은 과연 무엇인가. 김정일정치의 높이는 어디에 있는가.

CNC는 그것을 상징하는것이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CNC화를 통하여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종자를 틀어쥐였으며 CNC라는 말과 함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지름길을 열어나가고계시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야 알게 된 이 놀라운 현실앞에서 원수들은 당황장조하였다.

CNC를 틀어쥐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정치실력이 안아올 조선의 앞날을 예견해 볼 때 원수들은 하루한시도 발전점을 잡수가 없는것이다.

그날도 우리 장군님의 현지도는 계속되고있었다.

첨단기술명령에서 또 하나의 단계에 올라선 기쁨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CNC화가 실현된 현장들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시었다.

제품생산의 실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 있는 기계들의 신속한 동작과정을 주의깊게 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CNC노래를 부르는데 대하여 이상한 말을 한다구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노래에 넣은 CNC라는 말을 단순한 영어자모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CNC는 영어자모가 아니라 슬라브어자모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될것 같소?》

하하하... 통쾌한 웃음발이 지구를 휘감는 듯 하였다.

발명하고 돌아서면 또 새것

새것이 많이 창조될수록 그것을 온 나라에 빨리 전파시키는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가고있었다.

최첨단과제에서 앞서나가는 단위와

뒤떨어진 단위사이의 거리를 좁혀나가는 것이 경제장국에 맺는 지름길이라고 하였다.

2010년 5월 2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또다시 찾으시였을 때였다.

홀몰려 훌륭한 교육환경을 마련해주신 보람으로 지식경제시대의 교육기관다운 체모를 그쁘게 갖춘 대학의 새 모습을 보시는 장군님의 기쁨은 그 무엇에 비할수 없었다.

최첨단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로 꽉 들어차 그야말로 천지개벽이었다. 우리가 선군을 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뜨거운 감회가 절로 터져나오는 희한한 현실이었다.

원격교육설비가 갖추어진 강의실에도 들어가보시고 전자열람실에도 들리시고 대학홈페이지의 자료검색체계도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많은 시간이 가고있는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었다.

첨단설비들을 다루면서 미량원소들을 분석해내고있는 대학생들의 모습, 흉남비로련한기업소 가스화공정에 대한 모의실험을 하고있는 대학생들의 모습... 로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이 높은 수준의 실험실습설비들을 앞에 놓고 탐구의 나래를 펼치고있는것은 볼수록 가슴뜨거운 일이었다.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학이 갖출것을 다 갖추었으니 무서운것이 없습니다. 마음먹은대로 교육사업을 내밀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이는 교육자들의 목소리는 끝없는 행복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총속에서 최신식실험실습조건을 갖춘 몇정어대학으로 일선된 자량이 너무도 커서 대학일군들은 장군님께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저도 모르게 벌성벌성 웃고있었다.

그렇지, 이렇게 되어야 해, 아주 잘했어라고 거듭 위우시면서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에도 깊은 사색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요. 어제날에는 유리판에 넣은것을 눈으로 보면서 화학실험을 하였다면 오늘은 최첨단실험설비로 정확한 분석수치를 얻어내는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

어버이장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군들도 또, 그렇습니다. 이제는 최신식실험실습설비들에 대한 판리를 잘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과업으로 되었습니 다라고 신심에 넘쳐 아뢰었다.

이만한 환경이면 얼마든지 세계를 굽어보며 지식의 탐을 높이 쌓을수 있다는 생각, 이런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하고 현장을 나가면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갈수 있을 것이라는 신심이 일군들의 마음속에 차넘쳐있었다.

이러한 일군들의 심증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신중히 어조로 목표를 더 높이 세워야 한다고, 사업에 성공을 거두었을 때 앞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

심하게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귀중한 교훈으로 되는 말씀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대학의 일군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도 가볼것을 권고한다고 하시면서 다시 말씀을 이으시었다.

《대학교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가보고 시야도 넓히고 많이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학교원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에 놓은 설비들을 잘 연구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것으로 사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설비갱신주기가 빠르기 때문에 설비를 쓰는 순간에 중고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범비지 말고 세계적수준을 보면서 설비를 잘 사와야 합니다.》

최첨단으로 나가는 교육자들의 발걸음에 새로운 진리를 안겨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었다.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끝없이 새것을 창조해나갈것을 바라는 자세로 온 학생의 가르침을 새겨가는 교육자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의 신심에 넘친 눈빛들을 뜨겁게 보시면서 앞선 과학연구성과들에 대하여서는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말고 빨리 보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발전되는 하루라도 빨리 보급되어야 합니다. 발명하고 돌아서면 또 새것이 나온단 말입니다. 새것을 만들어내는데도 품을 들여야 하지만 그것을 보급하는데도 품을 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시었다.

《과학은 발명이지 보급입니다.》

지식경제시대에 살고있는 우리의 모든 교육자들과 지식인들, 모든 일군들에게 귀중한것을 새겨주시는 의의깊은 말씀이었다.

발명은 곧 보급이다!

새로운것이 발명되면 그것은 곧 보급으로 되어야 하며 새것을 보급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른수록 최첨단으로 가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시대의 철학적 요구가 이 짧은 말속에 담겨져있다.

오늘의 새것이 매일에도 새겨질수 있다. 성과에 만족하여 허리뭇을 풀어놓으면 다음날엔 뒤떨어진 사람으로 되가마련이 아니다.

새것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여도 전파되지 못하는것을 또한 새것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누구나 쉬임없이 배우며 최첨단에 오르자, 훌륭한 본보기는 어찌 빨리 보급하고 신속히 받아들이자, 그 속에서 하루하루라도 앞당겨나가자,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시대의 호소가 담긴 말씀이었다.

지식경제시대의 활무대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최첨단과제의 포성들이 온 세계에 앞서나갈 애국의 불길을 활활 지펴주시는 그날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장에 붙여이 흘러들었다.

(다음호에 계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아씨프 알리 자르다리각하

나는 파키스탄인민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100 (2011)년 3월 22일

평양

내 각 총리 최영림동지

평양시 남새생산문제 료해대책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최영림내각총리가 만경대남새전문농장과 칠골남새전문농장, 리현남새전문농장들을 돌아보면서 평양시의 남새생산문제를 료해대책하였다.

이 것들어있는 남새전문농장들의 농사차비설비와 양수시설가동정형을 알아보고 관계부문 일군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을 협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수도시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남새전문농장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올해 남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실무문제들이 논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내각을 비롯한 련관단위들에서 남새농사에 결실히 요구되는 양수동력 및 영농물자들을 제때에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있었다.



조선국민회와 더불어 빛나는 지원의 승고한 뜻

준업들은 김일성조선에 기여이 강성대국의 문제를 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천만국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94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이 력사의 날을 맞으며 우리 근대와 인민은 지원의 사상을 내놓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나의 아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지난날 일제의 발굽밑에 짓밟혀 땅굴의 피눈물을 뿌리던 우리 겨레에게 자주독립과 민족자생의 신심을 안겨주고 반일성전으로 힘있게 떠밀어준 지원의 사상, 여기에는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이이고 아이는 싸우다 무타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김형직선생님의 백혈불굴의 혁명정신이 집대성되어있다.

1910년대 반일독립운동자들은 큰 나라만 쳐다보면서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았으며 더 믿어놓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민족의 힘을 믿고 그것을 깨우쳐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것을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로 보시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광범한 민중을 묶어세워 민족자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자면 이를 사명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조직이 있어야 함을 절감하시고 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 가시었다.

반일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자면 핵심이 준비되야 튼튼한 대중적지반이 있어야 했다. 이를 위하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봉파를 활동거점으로 하여 창성, 은골 등 국내의 수많은 지역을 오가시며 독립운동가들과 인민들속에서 담화와 강연 등으로 반일계몽사업을 진행하시였으며 친우계, 친목회를 무으시고 그 운영사업도 지도해주시으로써 혁명조직건설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시었다.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중송투쟁의 불길을 높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가자

나라의 철도운수발전과 그 전망

수송조직을 짜고 들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도일꾼들이 철도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도 알고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 니다.》

공송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온 나라에 강대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오늘 철도운수부문에 있어서는 철도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철길을 결정적으로 개명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철도성 일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공동사설에 지적된 바와 같이 철도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온 나라가 떨쳐나서 철길을 결정적으로 개명하자면 이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 한다.

국장 리정식: 물론이다. 세 세기에 들어와 원유자원이 적

철도성 일꾼들과 나누는 이야기

차 고갈되어가고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수송분야에서 철도운수의 현대화사업이 중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관차를 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장거리자동차수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든다. 또한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자동차나 비행기보다 훨씬 적으며 수송효율도 높고 안전하다.

책임부원 권영철: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철도를 중시하고 그 현대화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이미 있는 철길을 개량하는 한편 새로운 철길을 계속 현대적으로 건설하고 있다. 나라별, 지역별로 철도의 고속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승객과 화물수송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새로운 형태의 능률높은 기관차와 객차, 철도설비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기자: 우리 나라에서도 철도현대화가 힘있게 벌어져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국장 리정식: 그렇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철도현대화사업은 현실 조건에 맞게 줄기차게 추진되어 왔다. 최근년간에만도 여러 철길 구간에 대한 개건공사가 완공 되었으며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와 통성배아링공장에서 설비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 생산능력을 1. 2배이상으로 높이고 있다.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동로계급과 철도운수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세계선진수준의 교류기관차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연구제작하기 위한 투쟁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오르며 우리의 철도운수를 새로운 과학기술적태도에 올려세울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기자: 앞으로 철도현대화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알고 싶다.

책임부원 권영철: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경제강국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따라 오늘뿐만 아니라 설계발전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철도현대화사업이 전망성있게 다그쳐지고 있다.

서부지구의 중요간선에서 철길을 증량하고 열차의 고속운행을 실현하며 이를 본고공장과 객차화대, 기관차대들에서 수리기술을 현대적으로 꾸려 물질기술적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겠다. 특히

도들에 강력한 건설력방들이 꾸려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수천km에 달하는 주요철길들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투쟁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순호, 라흥공리트칭목공장들을 개건하여 생산능력을 확장하는것과 함께 종전보다 생산능력이 높은 새로운 침목공장과 객차제작 및 수리기술을 현대적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준비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특히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교류기관차생산선을 다그치며 각종 전동차와 리객용수송전차들을 새로 제작하기 위한 물질기술적태도를 하나하나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의 주강공장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화학생산공정을 호름식으로 꾸리며 라흥철도공장, 통성배아링공장을 비롯한 각지 철도공장들의 설비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중앙과 각

신의주철도분국에서

신의주철도분국의 일꾼들과 수송전사들이 1월과 2월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3월에도 대고조전투쟁장에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도수송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오늘 인민경제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분국에서는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에 더 많은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조직적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당위원을 맡아세워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제동수두를 비롯한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으로 적극 떠밀어주고

참모부의 일꾼들은 역들이 나가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면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중송투쟁의 불길은 신의주 기관차대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기관차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기관차수리장비와 기술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실행물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으며 계획보다 더 많은 기관차들을 수송전투에 진입시키고 있다.

청년객화차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중송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자면 화차수리를 앞세워야 한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제동수두를 비롯한 많은 짐을 실어나르기 위한

보장하면서 매일 화차수리계획

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현대적혁신의 불길은 신의주 철길대에서도 힘있게 타오르고 있다. 철길대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드는 한편 고착물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면서 철길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전기통신부문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통신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중송투쟁의 불길을 지퍼올리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아메단위들에서 발원되고있는 긍정적모범들을 제때에 일민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모든 단위들에서 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고무추동을 하고있다. 특약기자 송창윤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사업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단들을 더 많이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김종래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이곳 당위원회에서는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꾀고들어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면서 기능공들을 비롯한 광범한 생산자대중이 기술혁신운동에 주인공을 자각하고 적극 참가하게 하고 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과학기술로 만사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기술개건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실정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과학기술력방을 튼튼히 꾸리고 조건보장사업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철도현대화방침을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기업시험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단조소재를 유도로에서 가열보장하며 새로운 재료들을 리용하여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반직장과 주물직

장에서는 성능높은 용접설비들을 제작하고 새로운 온도측정 및 현시장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기술발전과 기술과의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공정들에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단조소재를 유도로에서 가열보장하며 새로운 재료들을 리용하여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반직장과 주물직

장에서는 성능높은 용접설비들을 제작하고 새로운 온도측정 및 현시장치를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기술발전과 기술과의 기술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공정들에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의 일꾼들과 기술자들은 단조소재를 유도로에서 가열보장하며 새로운 재료들을 리용하여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제반직장과 주물직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에서 기술개건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의 일꾼들은 새로운 화학생산공정을 호름식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화력을 집중하면서 주강공장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가공설비들의 현대화를 동시에 밀고나가고있다.

기술발전과 기술자들이 현대화의 앞장에서 크게 한몫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다. 대차직장과 공작기계직장에서 설비현대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대차제작을 붙이면서 여러가지 가공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주강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일정한 단계로 추진되고있으며 단조가열공정에 새로운 연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자기 땅에 밭갈이 고는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로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련합기업소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대화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련합기업소에 달려나온 국가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화학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시키고있다.

대차직장과 공작기계직장에서 설비현대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새로운 대차제작을 붙이면서 여러가지 가공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주강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일정한 단계로 추진되고있으며 단조가열공정에 새로운 연소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자기 땅에 밭갈이 고는 세계를 보는 혁신적인 안목과 창조적인 일본새로 기술개건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련합기업소 일꾼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대화성과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련합기업소에 달려나온 국가 과학원의 과학자들이 화학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그 질을



철길보수작업에서 련일 혁신

공송시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함흥철도국 함흥철길대의 일꾼들과 철길원들이 철길보수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밤낮이 따로없이 불꽃튀는 전투를 벌임으로써 최근 한달동안에 맡겨진 레우교체과제를 3배이상으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펼치었다.

이곳 철길대의 일꾼들은 중요구간들에 대한 레우교체작업에 노력과 설비를 집중하고 현 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동성있게 풀어나가면서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남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철길대의 모든 전투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감에 레우교체작업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어 작업구간의 불리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맡겨진 작업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기술일꾼들이 현호식, 리경천동무들은 레우교체에서 사소한 부족점도 나타나지 않도록 기술지도와 검사를 끈기 있게 하였으며 여러 철길소대원들도 자기들의 깨끗한 마음과 성실한 맘을 바치었다.

철길개건의 불길은 다른

전투장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철길대의 일꾼들과 철길원들은 중요구간의 철길보수를 붙이면서 해체함으로써 용납가소화대공사에 필요한 물동수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여러역에 새로운 철도설비를 설치하는 작업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이곳 철길대의 기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운 레우교체과제를 자동성있게 풀어나가면서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남저 어깨를 들이밀었다. 철길개건의 불길은 다른

철길개건의 불길은 다른

남새생산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여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 남새생산을 늘여 수도시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높은 목표 밑에 당면한 영농전투를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남새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남새밭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합니다.》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남새생산을 늘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가르침을 높이 받들고 올해 남새농사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부려일으키고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봄남새의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릴 데대한 목표를 세우고 모든 일꾼들이 들끓는 포진들에서 나가 화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영농농정별로 기술적지도와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전투지휘를 잘해나가게

하고있다.

일꾼들은 남새농사에서 부침방의 지력을 높이는 사업이 가져오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더 많은 거름을 련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모든 농장들에 정보당 50이상의 질소를 거름을 실어내게 하는 혁신적성과를 거두었다.

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남새농사에 필요한 영농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이들은 년초부터 남새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얼마전에 많은 량의 비닐박막을 확보하여 시안의 농장들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리경남, 장순남, 전성길동무들을 비롯한 일꾼들은 남새농사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당면한 영농전투를 위한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이곳 일꾼들은 시작부터 잡도리를 든든히 하고 올해에 이어 남새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를 확고한 신심에 넘쳐 한사

랑같이 떨쳐나섰다. 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꾼들은 농업근로자들에게 깊이 들어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남새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해설선전사업을 실시할데 벌리는 한편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 영농사업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감도록 하고있다. 그리하여 시안의 모든 농장들에서는 시금치를 비롯한 남새작물심기가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만경대구역과 사동구역, 형제산구역, 락랑구역이 앞장에서 나가고있다. 시농촌경리위원회일꾼들은 당면한 봄철남새씨뿌리기와 함께 더 많은 남새밭을 조성하고 수백동의 남새농장을 건설하며 남새밭들에 분수관수시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단계별목표도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약기자 최수복

축산물생산에 계속 힘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개조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데 대한 올해공송시설의 전투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고기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있다. 추무되는것은 농장에서 판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태지, 오리, 닭 등 집짐승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하도록 하는것이다.

농장에서는 요즘 새끼돼지와 새끼오리, 병리공을 비롯한 여러가지 집짐승사육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에 맞게 판리공들이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금야군청년목장에서

금야군청년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올해에 축산물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목장의 일꾼들은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금야군청년목장에서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

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

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수행에 대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찾은 종업원들을 힘있게 부려일으키고있다. 목장의 일꾼들은 현장에 내려가 종업원들에게 집짐

인민소비품생산 1.6배 장성

함경남도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도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지금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1. 6배로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8월 도를 현지도하시면서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과업을 받들고 공장, 기업소와 개자작업반들에서는 각종 대중소비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도에서는 8월 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자주 조직하는 한편 생산단위들에서 제품의 량

파 가지수를 높이고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도를 받은 단위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앞장섰다. 함흥도방직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2월말에 1. 4분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과제를 완수하였다.

2. 8비날련합기업소와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는 바늘과 종이를, 여러가지 가정용품 등 수십종의 제품을 다량생산하여 인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단천지구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창조적지혜

와 힘을 합쳐 소비품생산과제를 매달 넘쳐 수행하였으며 성장강진기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도 선진기술을 생산에 받아들여 각종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있다.

최근에는 가내작업반대렬을 1. 5배로 늘인 시포시와 금야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만들어냄으로써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윤곡련방, 함흥단조공장, 고원영예군인일용품공장, 허현중이공장에서도 출몰있는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관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고기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배천군 추정협동농장에서 축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있다. 추무되는것은 농장에서 판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태지, 오리, 닭 등 집짐승들에 대한 사양관리를 잘하도록 하는것이다.

먹이문제를 자체로 해결

삭주군 읍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서

풀먹는집짐승을 대대적으로 기를데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삭주군 읍협동농장의 축산작업반원들이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작업반초급일꾼들은 작업반원들에게 들어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올해의 총공적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것을 호소하면서 그들의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올해의 새끼토끼생산목표를 지난해보다 1. 5배로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있다.

작업반에서는 풀먹는집짐승사육이 늘어나는데 맞게 먹이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강길

먹이보장이자 곧 축산물 생산성과 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고

는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하는 것과 함께 비일관적의 생산을 다그쳐 집짐승들의 먹이를 충분히 보장해나가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도 힘을 넣어 불병에방대책도 미리미리 세워가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유이 뜨겁게 새겨진 고향명을 더욱 빛내어가려는 이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는 날이 갈수록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먹이보장이자 곧 축산물 생산성과 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고

는 내부원천을 적극 동원하는 것과 함께 비일관적의 생산을 다그쳐 집짐승들의 먹이를 충분히 보장해나가고 있다.

작업반에서는 수의방역사업에도 힘을 넣어 불병에방대책도 미리미리 세워가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유이 뜨겁게 새겨진 고향명을 더욱 빛내어가려는 이들의 헌신적노력에 의하여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는 날이 갈수록 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교육자들은 이런 훌륭한 인간들이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 부교장, 인민교원 송정실동무

우리는 취재를 마치고서도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리앞에는 50대의 한 교원이 앉아있었다. 겉보기에 남다른게 없는 수수한 모습의 내교원, 하지만 그가 걸어나오는 길은 범상치 않았다. 그의 인생담은 가슴벅차기도 하고 눈물겹기도 하였다. 정말 불같이 살아온 교육자였고 앞으로 불같이 살아갈 인간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과 인민이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는 후대교육을 위해 모진 노력을 다 바쳐 투쟁하여온 우리 교육일군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인민교원인 송정실동무가 걸어온 길을 다시 더듬어 보았다. 교단과 더불어 30여년 그가 수놓아온 삶의 자욱하다는 우리 인민이 간직한 삶의 신조와 우리 생활의 진리가 보처럼 빛을 뿌리고있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수령님처럼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며 후대들의 성장발전에 깊은 관심과 크나큰 애정을 돌려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으신지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에 있는 수많은 중학교 교원들의 하나인 남흥중학교에 후대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그런 뜨거운 사랑의 이야기가 깃들여있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4월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학생들을 준비한 집단체조를 보아 주시다가 남흥중학교 학생들이 출현하는 문턱을 보시고 환히 웃으시며 잘한다고, 보기 좋다고, 저런 체조를 하니 아이들의 몸매도 교과지고 미끈해져서 보기도 좋으며 아이들이 교과진다고 하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 후 또다시 남흥중학교 학생들의 예술체조를 보아주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잘한다고 치하해주시면서 예술

체조를 너학생들에게 좋은 체조라고, 예술체조를 하면 학생들의 몸매가 교과지고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해진다고 하시면서 학생들의 예술체조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예술체조, 체육무용에는 이처럼 자라나는 후대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앞날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키우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뜨거운 사랑이 어리여었다. 송정실동무도 중학 시절 그런 은정속에서 파의체육활동시간에 예술체조와 체육무용을 즐겨하시어 몸도 단련하고 정서도 키우게 되었다. 그는 예술체조와 체육무용을 남달리 좋아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고 파의체육활동도 하는 딸을 보면서 자부심을 짓곤 하였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세상이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예술체조나 체육무용을 학생들의 파의체육종목으로 장려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정실아, 수령님의 품에 안겨 누리는 이 행복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거라.》

거기론 일본에서 태어나 다섯달만 조국의 품에 안긴 딸이 자기와 얼마나 부된 삶을 누리지는 잠시라도 잊을새라 송정실동무의 어머니는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겪은 피눈물나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들려주곤 하였다. 그때마다 송정실동무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하였다.

(은혜로운 조국의 품속에서 꽃피는 내 모습을 온 세상에 자랑하였으면...)

그는 전국적범위에서 진행되는 학생들의 예술체조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 전국적인 청소년학생예술체조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니기도 하였다. 하지만 송정실동무는 그것만으로는 성취

않았다. 후날 회담대로 교단에 선 그는 학교파의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업에 스스로 몸을 잠그었다. 그는 학교에 체육무용소조를 꾸리고 수업이 끝난 후이면 학생들에게 예술체조, 체육무용을 정형적으로 배워주었다.

《그 일이 그렇게도 재미나느냐?》

하루는 송정실동무의 아버지가 밤에 뽀뽀 젖어 들어가는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얼마나 재미난지 아세요. 보시지요. 저 학생들이 한 이태사이에 얼마나 미끈하게 자랐는가.》

송정실동무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이였다. 《내 소원이 뭐지 아세요. 저렇게 팔팔하게 자란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사람의 소원에는 그 인간의 진가가 비친다. 이 땅의 한 인민교원인 송정실동무는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중학교에 있는 이 교원은 우리 시대의 교육자들과 고결한 인간미, 숭고한 인생관이 비껴있었다. 송정실동무는 안고 한생 변함없이 걸어온 한 인간의 삶을 자기 수레, 자기 명도자를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높이 받드는 우리 인민의 참모습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처녀때는 물론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후에도 예술체조, 체육무용을 잘하는 각자의 학교들을 찾아다니며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열심히 배우고 송정실동무는 안간힘을 쓰며 당시 일이었다. 그리고는 격정적 이 가득 실린 눈으로 쳐다보는 학생들에게 웃으며 말하였다. 《내 그만 깜박 졸았던거봐요. 걱정 말고 어서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날은 제자들이 파의체육활동을 통하여 정진체육적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모습으로 교문을 나서서 날아오고 있는 날이었고 제일 큰 행복은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학생들의 끝끝한 모습을 보며 흐뭇하시었다. 그런 때면 송정실동무는 소리가 울었다.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차서 눈물을 쏟았다.

돌이켜보면 그는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는 30여년간 학교파의체육지도에 지혜와 열정을 장그러 바쳐 수많은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앞날의 혁명인재로 튼튼히 키워내었다. 또한 학교에서 한가지 이상 종류의 체육을 전문화해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 앞장서 수많은 체육무용선수들을 양성하였다.

그는 《어머님의 고창절애에서》, 《선군의 눈보라》를 비롯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선전하고 선군조선의 불멸의 위력을 보여주는 수십편의 체육무용작품을 훌륭히 창작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학교의 학생들이 정립봉상전국청소년학생체육대회 체육무용종목에서 20차례 걸쳐 1등의 영예를 정히 하게 하고 980개의 금메달을 수여하며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체육무용종목 《아리랑》을 비롯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창조에 적극 기여하고 나라의 체육무용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가 거둔 이런 사업성과는 결코 남다른 재능이나 실력이 낳은 것만이 아니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대로 학생들을 키우려는 한 마음,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길에 밀려들어와서 끝없는 헌신성과 희생성이 안아온 결실이다.

그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창조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학생들과 함께 평양으로 떠난 때의 일이다. 송정실동무는 몸이 불편해지는 날때문에 선뜻 집문을 나서지 못하였다. 그러자 당일군인 그의 남편이 웃으며 말하였다. 《걱정 말고 어서 가요. 당신

뒤바라지를 하겠다고 내 이미 수십년전에 약속하지 않았소.》

송정실동무의 눈앞에는 불현듯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교편을 잡고 후대들을 키우려는 딸을 무척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가정의 자랑으로 여기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서 딸이 시집가게 되었을 때 그처럼 원심을 썼던가. 그때 송정실동무는 부모와 함께 개천에서 살고있었는데 그의 대상자는 남포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느날 송정실동무의 아버지는 사위가 될 사람과 우정 마주하였다.

《나와 한가지 약속하세. 우리 딸이 남포로 가거든 교원생활을 계속하고 학교의 예술체조나 체육무용도 지도해야 할테니 그러려면 처녀때와는 달리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네. 그러면 내가 도와줄수 있겠나?》

《잘 도와주겠습니다. 아버지. 《안해를 도와 봐도 좋고 뺨 때도 할수 있나?》

후날 체육무용을 남달리 사랑하는 처녀와 가정을 이룬 김송정실동무와 그의 애인의 아버지의 우정같은 마음은 눈곱을

남기지 않았다. 《후대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고맙고 우리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께서 나에게서 그런 약속을 받아내셨소. 부탁 하건대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꼭 지켜주세요.》

《후대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고맙고 우리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께서 그런 약속을 받아내셨소. 부탁 하건대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꼭 지켜주세요.》

《후대들을 귀중히 여기시는 우리 수령님이 얼마나 고맙고 우리 제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께서 그런 약속을 받아내셨소. 부탁 하건대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꼭 지켜주세요.》

송정실동무의 인생은 자기를 조국의 미래를 가꾸는 교단에 세워주고 교원들을 혁명가로 불러준 당과 수령의 믿음에 한

생애를 바쳐 보답하는 것이 우리 시대 교육자들의 생활신조이며 오늘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오늘에 사는 투쟁과 생활속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가치와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확증해가고있다.

후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앞날의 주인공들로 여색게 키우는데 충춘조 가정도 다 바치며 수십년세월을 한결같이 살아온 송정실동무의 진정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주시고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다.

아버이자장군님의 품속에서 송정실동무는 이제 인민교원의 영예를 받아안았고 오늘은 선군시대 공로자로 삶을 더욱 빛내이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금핀지도 안겨주시고 그의 소행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해주셨다.

위대한 령도자의 이런 사랑속에 살며 일하는 이 땅의 교육자들과 훌륭한 교육자가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철



체육무용훈련에 힘을 쏟고있는 송정실동무

혁명전통교양에 적극 이바지될수 있게

량강도에서 구호문헌들을 실내교양장소들에 영구보존 및 전시

량강도안의 혁명사적부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이룩한 산비탈과 평지를 타고 넘어 실내에 영구보존 및 전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구호문헌들을 혁명전통교양에 더 잘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혁명전적관리국에서는 최근년간 참관문헌으로부터 먼곳에 있는 구호문헌들을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부본에 옮겨 영구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도혁명사적부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백두의 이룩한 산비탈과 평지를 타고 넘어 실내에 영구보존 및 전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과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구호문헌들을 혁명전통교양에 더 잘 이용할수 있게 되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혁명전적관리국에서는 최근년간 참관문헌으로부터 먼곳에 있는 구호문헌들을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부본에 옮겨 영구보존 및 전시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도혁명사적부본

량강도김일성동지혁명사적부본과 삼지천, 신파, 포평혁명사적부본 비롯한 도안의 여러 혁명사적부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실내구호문헌전시장이 새로 꾸러졌다.

도안의 혁명사적부본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성과가 마련되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를 찾았다.

교장 김광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컴퓨터와 텔레비전수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이 그릇된 갖추어져있는 교실들을 돌아보던 우리가 2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교실에서는 오후파의 학습시간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원격강의를 받고 있었다. 송상카메라와 마이크로를 리용하여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교원이 그에 대한 대답도 하면서 진행되는 원격강의가 학생들의 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교장은 말하였다.

학교에서는 유능한 교원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방영하기도 하고 동화상자료를 자기로기에 구축해놓았다가 임의의 시간에 학습할수 있게 하고있다.

컴퓨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것을

고려하여 화면이 큰 텔레비전수상기를 리용하여 강의를 하고있는것이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를 찾았다.

교장 김광철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컴퓨터와 텔레비전수상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이 그릇된 갖추어져있는 교실들을 돌아보던 우리가 2학년 1반 교실에 들어갔을 때였다.

교실에서는 오후파의 학습시간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원격강의를 받고 있었다. 송상카메라와 마이크로를 리용하여 학생들이 질문도 하고 교원이 그에 대한 대답도 하면서 진행되는 원격강의가 학생들의 심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있다고 교장은 말하였다.

학교에서는 유능한 교원들의 강의를 실시간으로 방영하기도 하고 동화상자료를 자기로기에 구축해놓았다가 임의의 시간에 학습할수 있게 하고있다.

컴퓨터의 화면이 작기 때문에 뒤에서 잘 보이지 않는것을

계단의 양쪽벽면에 조각과 유화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형성한 원시림이 펼쳐져있던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컴퓨터들과 덧쌓이는 새 자료들로 하여 봉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할 형

침중이었다.

계단의 양쪽벽면에 조각과 유화를 조화롭게 배합하여 형성한 원시림이 펼쳐져있던것이다. 푸른 이끼덩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짙어낸 테고의 밀림을 형성한 벽화는 강의 리듬, 오후파의 화풍 등 많은 시선 컴퓨터를 다루는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시원하고 상쾌한감을 안겨주며 피로를 푸는데 도움을 주고있었다.

이렇듯 학교에서는 교육조건과 환경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게 개선하여나가고있으며 그와 더불어 교원, 학생들속에서는 탐구의 열정이 더 세차게 나래치

로동통신원들이 보낸 소식

미더운 제대군인

신창현전광 1명 소대장 심현명동무는 어제의 명사이다.

제대군인을 탄광에 풀어놓고 생소한 탄광일을 하나하나 익히던 그날이나, 소대장이 된 오늘이나 병사시절의 일처럼 돌봐주고있다.

석탄장사를 위해 자기 한몸을 강그리 불태우며 막강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소대원들은 실연으로 모여드는 제대군인이라고 존경당아 부르고있다.

로동통신원 유준화

총대가정의 행복

철산군 선주리 안문용, 김명신가정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4개의 조선인민군대중이 있다.

하나는 안문용동무가 받은 것이고 나머지 3개는 그의 세 아들들이 안정철, 안영철, 안혁철의 것이다.

조국의 귀중함을 실지체함을 통하여 가슴에 새긴 안문용동무는 안해 김명신녀성과 함께 세 아들모두가 한 가정의 행복보다 수령결사옹위, 조국



또 고대통령에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포르 에초집나 그나생그에 또 고공파국 대통령에게 17일 정학 세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선상에서 대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포르 에초집나 그나생그에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장을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들은 축원의 인사를 전하며 드릴것을 대내외에 부탁하였다.

그는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조선인민이 강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 하고 인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두 나라사이의 훌륭한 친선

협조관계는 에야에마 전 대통령에게에 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마련해주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위인이시며 우리 도에 많은 지지와 협조를 증진하시다. 역사적인 쌍무관계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들의 의무이다. 우리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조선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바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노력을 지지한다.

만종교사범학교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혁명사적부본에서

만종교사범학교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는 혁명사적부본에서

탐구의 열정 나래치는 곳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를 돌아보고

탐구의 열정 나래치는 곳

평양정보기술전문학교를 돌아보고

로당원의 참된 모습

해주시 광하동 27인민반 조영삼로인

로당원의 참된 모습

해주시 광하동 27인민반 조영삼로인

헬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출발

헬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출발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헬남방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헬남을 방문하기 위하여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단장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와 함께 주조 헬남방문 대표단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도착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가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가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헬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출발

헬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문

조선인민군 군사대표단 출발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스위스 켈핀스키호텔 그룹 총사장일행 도착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

로당원의 참된 모습

해주시 광하동 27인민반 조영삼로인

로당원의 참된 모습

해주시 광하동 27인민반 조영삼로인

헬남방문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헬남을 방문하기 위하여 리용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단장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와 함께 주조 헬남방문 대표단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 도착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가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일본 에히메현대조선문제연구소 대표가 2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합리화될 수 없는 반공화국대결정책

우리 공화국의 적극적인 북남관계개선에 노력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다.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있는 남조선 각계는 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시급히 전환하여 북남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내외의 비박치는 비난과 규탄으로 당황망조한 남조선당국은 반민족적인 《대북정책》을 합리화해보려고 여러차례 시도하고있다.

얼마전 그 무슨 《기쁨식》장에 나타난 통일부 장관 현인택은 저들이 지난 3년간 《비핵, 개방, 3 000》에 기초한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것이 앞으로 《통일에서 획기적전환점이 될것》이라는 식으로 황당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또다시 저들이 《대화 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 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누구의 《비핵화와 대외개방》이 《평화의 핵심과제》이고 《대북정책의 근본목표》이므로 다른 논의가 있을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었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조촉해 《대북정책》을 정당화하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거기에 실현하기 위해 모자름을 쓰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수 없다. 그것은 6. 15 통일선언의 흐름에 도전하여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나아가서 북침정세를 도발하기 위한 극악한 대결론으로 일관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핵문

제를 구실로 동족을 해치기 위한 미국의 불순한 계획에 따른 철저한 외세추종론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은 《핵을 이고는 통일이 갈수 없다.》느니, 《핵문제전진 상황을 보아가며 남북관계발전의 속도를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비핵, 개방, 3 000》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을 철저히 핵문제와 결부시키고있다.

미국에 의해 산생된 조선반도핵문제는 북남사이의 문제인것이 아니라 미사이의 문제이다. 그런 판례로 6자 회담도 있는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터무니없이 북남관계문제를 핵문제와 편파시키면서 그의 해결이 없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킬수 없다고 생 억지를 부리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이란 꼬물꼬물 없애기 위해 무작정 추종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려는 남조선당국의 반민족정체제를 뚜렷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북남의 협력과 교류를 철저히 반대하는 반통일대결론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대강인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비핵, 개방, 3 000》은 우리 가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저들이

그 무엇을 하겠다는것을 문자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그러면서도 남조선당국은 거기에 그 무슨 《원칙》이라는 모자를 씌웠다. 남조선당국은 이른바 《원칙있는 대북정책》의 간판을 내걸고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북남관계를 《전진시킬수 없다.》는것이 저들의 《원칙》이라고 떠들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의 이런 반통일적행동에 의해 북남당국사이의 대화 가 중단되고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들이 줄줄이 파탄되었을지언정 민간 단체들사이의 협력교류도 모조리 차단되고있다. 현실은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이라는것이 좋게 말하면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한 반통일대결정책이라는것을 실증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위험한 대결정책이다.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시대착오적인 《주적론》을 되살리고 우리에게 대한 모험적인 《선제타격》을 공언하였을 때 남조선당국의 속심이 북남관계개선이 아니라 북침전쟁도발이라는것은 이미 립증되었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미제침략과 함께 북침전쟁계획을 새롭게 보충완성하면서 《키 리졸드》, 《독수리》와 같은 대규모공동 군사연습을 광범적으로 벌여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한편 그 무슨 《군

사적우세》를 떠들며 북침전쟁공격을 가해볼 심산밑에 최첨단공격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여러식계도 그 무슨 《금번사태》를 운운하며 감히 우리의 존엄을 체를 어찌보려고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로서 남조선의 색이빠진 통치체제를 공화국국민들에게까지 확대해보려는 용납 못할 범죄적당풍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은 외세와 작당하여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대결상태를 지속시키며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불침을 더뜨리기 위한 반민족적인 대결전선론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우리 공화국을 해치기 위한 범죄적기도가 뻔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나쁜 대결각본을 합리화하며 민심을 오도하려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그것은 북남관계발전과 나라의 평화,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에 대한 참살수 없는 우풍이다.

남조선당국이 이미 실패한 《대북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그것을 거기에 실현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남조선당국이 들고나온 《대북정책》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본질을 똑똑히 꿰뚫어보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온 민족의 일관배격을 받고있는 《대북정책》을 전환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걷어치워야 한다.

김정욱

위대한 애국의 한생애에 대한 청중

세월의 흐름은 망각을 동반한다고 한다. 불멸의 업적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통일의 길에 한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혼한 그리움의 격랑을 일으키고있다.

그리움은 하늘에 닿아

남 녀 겨 레 들 은 7천만겨레의 마음에 받들려 솟아있는 《태양의 집-하늘궁전》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글에 이렇게 썼다. 《저금도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마음속으로 끝없이 찾았습니다.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도 뜨겁게 간직하고있는 태양회 회장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애버이수령님의 영생을 바라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경모의 대하, 영생기원의 행렬이 끊이지 없이 끊이지 않고있다. 《태양의 집-하늘궁전》으로의 길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자신을 알고 민족을 알며 행수를 아는 깨달음의 길이다. 우리 민족의 단합할 힘은 온갖 장벽과 차단봉을 무시고 《태양의 집》이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도 평양으로 올라가라. 이것이 이남민중의 지향이며 의지이다.》

경고결은신 통일의 길

그 나날속에는 겨레를 위해, 통일을 위해 비호는 날, 찬눈길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길고 또 길은 현지지도의 자욱자욱도 있고 애국의 뜻을 안고 찾아오는 해내외의 각계 인사

들을 허물없이 만나주시며 민족단합과 통일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감동깊은 이야기도 있다. 정병 김일성주석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언제나 조국통일과 잇닿아 있다.》

애국의 헌신으로 빛나는 생애

남 녀의 한 언론인은 《조국통일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실천을 위해 온갖 고고와 실험을 다 기울여신분이 바로 김일성주석님입니다. 조국통일을 최대의 민족적과업으로 삼으신 김일성주석님 이시기에

한생을 민족의 통일사업에 바치셨고 생의 마지막순간도 조국통일사업으로 빛나고있습니다. 우리들이 김일성주석님을 진실로 따르는것은 어떤 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석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에 매혹되었기때문이다.》

속내 깔을 품은자들의 《진정성》 다령

있다면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지지하고 리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대결정세로 되돌리려는 야욕이 짙어지고 있다. 《리행 할 무가 없다.》느니 하며 전면부정해나갔다. 그런가하면 민족적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 6. 15 통일선언을 《침입버린 10년》으로 모독하며 북남관계를 체계적으로 말살했다.

다름아닌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조금도 없으며 있는것은 오직 우리와 대결할 흥심뿐이다. 그들의 《진정성》 다령은 속내 깔을 품은자들의 대결정세로 되돌리려는 야욕이 짙어지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떼를 썼으며 지어 《위장평화공세》라느니, 《공식사태의 로 보기 어렵다.》느니 하는 고약한 소리가 늘어놓으면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으로는 외세와 함께 크고작은 북침전쟁준비를 매달같이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켰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남북관계개선을 해소하기 어렵다. 《당국자들에게 어떤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보수당과 공화당을 성토했다. 얼마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당국이 북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그 무슨 《태도변화》를 요구하는것은 북남대화를 가로막고 대결상태를 지속시켜려는 속심의 발로라고 까발리면서 당시 태도를 변화해야 할 당사자는 남조선당국이며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화국대결정책에서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으면서 오직 이 때를 드는 격으로 우리의 《진정성》을 운운하고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자들인가. 우리는 남조선에서 6. 15 공동선언과 10. 4 선언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 이후에도 어떻게 하든 북남관계를 전진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올해초에 우리가 내놓

남조선당국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에게는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조금도 없으며 있는것은 오직 우리와 대결할 흥심뿐이다. 그들의 《진정성》 다령은 속내 깔을 품은자들의 대결정세로 되돌리려는 야욕이 짙어지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떼를 썼으며 지어 《위장평화공세》라느니, 《공식사태의 로 보기 어렵다.》느니 하는 고약한 소리가 늘어놓으면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으로는 외세와 함께 크고작은 북침전쟁준비를 매달같이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켰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와 만나보지도 않고 무작정 《진정성》이 담기지 않았다고 생떼를 썼으며 지어 《위장평화공세》라느니, 《공식사태의 로 보기 어렵다.》느니 하는 고약한 소리가 늘어놓으면서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편으로는 외세와 함께 크고작은 북침전쟁준비를 매달같이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켰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독수리》

연습은 《핵무기제기》 훈련, 《지휘기점정밀타격》 훈련, 《대테러》 훈련 등과 같은 우리에게 대한 쿠데타 도발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있다. 특히 호전파들은 조선반도에서의 《구지전 및 전면전》 유형을 4 가지로 분류하고 그 발생시 미군공병을 신속히 전개한 후 공격으로 이행하는 훈련에 열심을 올리고있다. 이미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미군기지가 각종 전쟁장비와 물자들이 전진배치되었으며 민간항공기까지 동원하는 6차례의 미군수송훈련도 벌여지게 된다. 결국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국면으로 따른 여러가지 전투형동조법들을 숙달하고 공격수행능력과 능력을 검토,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 전쟁연습이 4월말까지 계속되는것은 내외의 커

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독수리》

연습은 《핵무기제기》 훈련, 《지휘기점정밀타격》 훈련, 《대테러》 훈련 등과 같은 우리에게 대한 쿠데타 도발적인 내용들로 일관되어있다. 특히 호전파들은 조선반도에서의 《구지전 및 전면전》 유형을 4 가지로 분류하고 그 발생시 미군공병을 신속히 전개한 후 공격으로 이행하는 훈련에 열심을 올리고있다. 이미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미군기지가 각종 전쟁장비와 물자들이 전진배치되었으며 민간항공기까지 동원하는 6차례의 미군수송훈련도 벌여지게 된다. 결국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북침전쟁국면으로 따른 여러가지 전투형동조법들을 숙달하고 공격수행능력과 능력을 검토, 완성하기 위함이다. 이 전쟁연습이 4월말까지 계속되는것은 내외의 커

반인민적약정이 낳은 비참한 보건의실태

최근 남조선에서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한 단도도 없이 립상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게의 경악을 자아내었다. 환자들을 위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쓰게 하고 몸살과 나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립상실험을 하는것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환공만들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보건의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반인민적약정이 낳은 비참한 보건의실태

최근 남조선에서 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환자들의 생명을 위한 단도도 없이 립상실험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게의 경악을 자아내었다. 환자들을 위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쓰게 하고 몸살과 나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립상실험을 하는것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는 환공만들이 지배하는 남조선사회의 보건의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재미동포들 반전평화를 주장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재미동포인네트신문 《민중통신》에 의하면 19일 재미동포들은 데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평화와 반전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반대》, 《평화협정》, 《평화통일》 등의 구호판

재미동포들 반전평화를 주장

《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재미동포인네트신문 《민중통신》에 의하면 19일 재미동포들은 데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평화와 반전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쟁반대》, 《평화협정》, 《평화통일》 등의 구호판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물의를 일으키는 외교관추문사건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보 다같이 남조선의 외교관신분을 가진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론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보 다같이 남조선의 외교관신분을 가진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론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보 다같이 남조선의 외교관신분을 가진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론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보 다같이 남조선의 외교관신분을 가진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자기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여론의 비난과 조소를 받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의 각종 추문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 국제적망신을 몰고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합동군사연습의 장기화책동

미국과 남조선의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있다. 《키 리졸드》 합동군사연습이 2만여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수십만의 남조선군에 의한, 예비군 병대만 병력이 투입되었다. 조선반도 《유사사》에 대비하여 미국이 본토에 배치하였던 선제타격수단들과 첨단전쟁장비들까지 동원되고있다.

